



태조어진 太祖御眞 Portrait of King Taejo

태조어진은 1410년(태종 10) 전주 경기전에 봉안되었다. 현존하는 태조어진은 1872년(고종 9) 조중묵을 비롯한 10인의 화사가 새로 모사한 영정이다. 건국자의 권위와 위엄이 돋보이는 어진으로 용안의 정면을 그린 전신상이다.



단종어진 端宗御眞 Portrait of King

조선6대 임금 단종은 1452년 12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단종은 1455년 15세에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그해 7월 공의온문태상왕(恭懿溫文太上王)이 되어 창덕궁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 단종은 병자옥사를 거치면서 숙부인 세조에 의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어 관공헌에서 17세에 죽임을 당하였다.



철종어진 哲宗御眞 Portrait of King

철종어진(보물 1492호)은 철종이 31세 되던 1861년(철종 12)에 그린 것이다.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이안했다가 1954년 화재로 오른쪽이 1/3쯤 소실된 것을 복원하였다. 응복(군복) 차림이며, 초상화에서 보기 드문 손의 형태를 볼 수 있고, 용모에 순수한 인품이 반영되어 있다. 눈썹이 짙고, 쌍꺼풀이 진 동그란 눈에 눈동자가 안으로 모여 있다.



태조어진(홍룡포)

太祖御眞 Portrait of King Taejo

경기전의 청룡포 태조어진(국보 제317호)을 홍룡포로 바꾸어 그린 것이다. 어진의 크기와 형태는 경기전 어진을 모본으로 하되 곤룡포의 색과 채전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어진을 토대로 하였다.



세조어진(초본)

世祖御眞 初本 The Portrait of Sejo and Its Sketch

세조 사후 첫 기일을 앞두고 예종은 광릉(光陵[세조의 왕릉] 옆에 진전(眞殿)을 세워 세조의 어진 한 점을 봉안했다. 이 어진은 임진왜란(1592~1598)과 뒤이어 일어난 두 차례의 호란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철종어진 哲宗御眞 Portrait of King

철종(哲宗[재위 1849~1863년]의 31세 어진으로 군복을 입고 교의에 앉아 있는 모습의 전신상이다. 「어진도사사실(眞眞圖寫事實)」과 「철종실록에 따르면 1852년(철종 3)과 1861년에 철종 어진이 각2본씩 도사되었으며, 이 어진은 1861년(철종 12) 강사포본(絳紗袍本)과 함께 제작된 군복본(軍服本)이다. 이한철(李漢喆[1808~1893년 이후]과 조중묵(趙重默[생몰년 미상])이 주관화사로 참여했다.



조선태조어진 朝鮮太祖御眞

경운궁(덕수궁) 선원전에 봉안하기 위해 1900년(광무 4)에 제작된 태조(재위 1392~1398년) 어진이다. 얼굴을 포함한 절반가량이 소실된 상태이다. 당초 선원전의 태조 어진을 모사하여 경운궁 선원전에 봉안하였으나 화재로 봉안되었던 어진이 모두 소실되어, 선원전을 새로 짓고 태조 등 일곱 임금의 어진을 다시 모사하였다.



영조어진 英祖御眞 Portrait of King

영조어진(보물 932호)은 51세 때 반신상으로 1900년(광무 4)에 조석진·채용신 등이 모사한 것이다. 어진 박물관 어진은 반신상을 근래에 전신상으로 모사한 것이다. 안색이 붉으며, 눈이 치켜 올라가고 코가 오뎅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깐깐한 성격이 엿보인다.



고종어진

高宗御眞 Portrait of Emperor Gojong

고종 사진을 보고 그린 어진이다. 고종어진은 이전의 조선왕들과 달리 황색 곤룡포 차림이다. 고종이 황제복인 황룡포를 입은 것은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에 올랐기 때문이다.



세종어진 世宗御眞 Portrait of King Sejong

세종은 어진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용안을 알 수 없다. 현재의 세종어진은 김기창화백이 추정하여 그린 상상도로 1973년 국가 표준영정으로 공인되었다.



정조어진 正祖御眞 Portrait of King

정조는 어진이 남아 있지 않아 실제 용안을 알 수 없다. 현 정조어진은 근래에 추정하여 그린 상상도로 1989년 국가표준영정으로 공인되었다.



고종황제 초상 高宗皇帝肖像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인 고종의 초상이다. 통천관(通天館)에 강사포(絳紗袍)를 입어 황제의 복식을 갖추었다. 배경의 휘장장식, 얼굴과 의복의 묘사에 사용된 강한 명암 효과 등이 전통 방식의 초상과 차이가 있다. 1918년경 찍은 고종의 사진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